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과 대화 '논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입후보 광주 서구청장이 18개 동을 돌며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 구청장은 불과 3개월 전, 모든 동을 돌며 주민들에게 임기 3년간의 지역 변화와 성과 등을 전달한 바 있다.

2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임 구청장은 오는 26일부터 3월 중순까지 서구 18개 동을 찾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계획하고 있다.

식진행사 10분과 본 행사 90분으로, 100여분 동안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 인사발, 구정보고, 건의사항 및 여론수렴 등을 진행한다.

각 동마다 100여명 내외의 주민과 기관단체장, 지역 원로, 시·구의원, 자생단체장 등이 초청될 예정이다.

서구의 경우 주민과의 대화를 매년 하반기 한 차례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기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 구청장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8개 동을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당시 행사 추진 배경과 개요, 참석 대상자, 주요 내용, 추진 방법은 이번호 같다. 사실상 같은 행사를 3개월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월 지방선거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행사 기간이 오는 3월2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기간과 겹친다.

주민과의 대화 방식을 변경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그 동안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제기된 건의 사항과 민원은 각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 답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즉석 답변 형식으로 진행한다. 사전 검토 없이 즉석에서 핵심성 약속이나 답변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원들은 늘어난 업무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직원은 "동주민센터의 경우 1~3월은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접수 등 업무가 많은 시기"라며 "올해는 지방선거도 준비 해야 하는데 동 순회 방문까지 갑자기 계획과 업무가 굉장히 늘었다. 심지어 자생단체 회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서구를 제외한 다른 3개 구청은 올해 상반기 내 '주민과의 대화' 행사 계획이 없고, 동구청은 지난 1월 일정을 마쳤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선거 관리위원회에 문의해 1년에 한 차례

광주 서구청장 26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계획

"같은 행사 3개월 만 다시 추진은 '부적절'"

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민선 6기의 마지막 공식 행사라고 보면 된다.

다. 여론을 수렴하고 구정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결산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화 형식의 경우 기존에는 주민들에게 미리 건의 내용을 받아 검토한 뒤 답변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연출한 게 눈에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아 바꿨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전쟁 반대 퍼포먼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대대 220차 집회에 참석한 평통사 관계자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흑색선전·금품제공' 전남경찰, 지방선거 관련 21건 수사

전남경찰청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비대납 사건 등 총 21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흑색선전과 금품제공 등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주철현 여수시장이 온·오프라인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 시장은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영암에서 특정한

이 더불어민주당원 173명의 당비 173만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은행에서 당비를 납부한 A(54·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당직자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은 흑색선전 2건, 금품제공 10건, 여론조작 2건, 사전선거 5건, 기타 2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세월호 인양 중 '유류 피해 어민' 국가가 보상해준다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조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4·16세월호조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어민들이

수입어원의 피해를 입었다. 인양 업체인 상하이셀비지는 기압한 보험사를 통해 손해를 산정했으나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어민들은 정부에 선(先)보상을 요청했다. 당시 해수부는 보상책임이 일차적으로 상하이셀비지에 있고, 법적으로 선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에 보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 한 모텔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21일 오전 8시10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모텔 6층에서 불이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15분여만에 진화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모텔에 있던 투숙객 1명은 불이나자 곧바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퇴마의식 따라했는데" 6살 딸 살해한 친모

퇴마의식을 한다면 6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모(38·여)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아버지는 20일 오전 8시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일 낮 12시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출근 목비권을 행사하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최씨는 "케이블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말한 영화가 실제로 방영됐는지 파악 중이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외관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영학에 1심 사형 선고...살해·성매매 등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극니 이씨(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32·사망)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찰에 허위로 계부가 부인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카 랜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도심서 집단패싸움 조직폭력배 대거 구속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도심에서 집단패싸움을 벌인 포항지역내 사보이파 조직원 6명과 사내파 조직원 1명 등 주동자 총 7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 두 조직 조직원 등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모 상가 사무실에서 조직간 흉기를 사용해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갈등이 누적됐고, 상대방 조직원을 빼기는 일이 발생하자 대당 도심에서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톡서 만난 男 2명 아래뱃길 투신 1명 사망

인천 서구 경인아래뱃길 수로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10대 남성 등 2명이 투신해 1명이 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21분께 인천 서구 경인아래뱃길 시천교 인근 수로로 30대 추정 남성과 A(16)군이 빠져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30대 추정 남성은 숨지고 A군은 의식을 찾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처음 만났다는 A군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남성의 신원 확인과 투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